

가정폭력 대응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가정에서의 심리, 신체 및 성적 폭력의 증가가 우려된다.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활동하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유행병 확산에 따른 격리가 유발하는 사회적 고립은 가정 폭력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의 위험 등으로 인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위험에 처했거나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지역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그들을 보호하라.

2.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하라

코로나 19 위기와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폭력은 종종 정당화되고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폭력 피해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 징후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사람들을 교육하라.

3. 심리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나 재난과 관련된 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기타 발달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오랜 기간 경험할 수 있다.

폭력이 유발하는 즉각적 혹은 장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라.

4. 편견 없이 폭력 피해자를 이해하라

반드시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폭력을 이해해야 한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이전 경험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

폭력 피해자 각자의 개별 요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라.

실천 사례

(사)한국심리학회 학회의 기존 코로나 19 상담 전화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긴급전화,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같은 가정폭력 상담 기관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들 기관과 연계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학회 연락처



(사)한국심리학회

www.koreanpsychology.or.kr

T. 02-567-0102 E. kpa@kpsy.or.kr

무료 상담전화 070-5067-2619, 2819